

辛卯年銘 陶范原型

崔 淳 雨

우리 古陶磁의 意匠에 使用되던 押型이나 陶范이 存在한다는 것은 陶

磁遺品에 나타난 자취로 보아 이미 짐작된 바 있었고 또 最近에는 筆者

가 發掘調査한 無等

山 金谷窯址에서 도

李朝初期에 屬하는

數點의 意匠用 陶范

이 出土되어서 注目

된 바 있었다. 이 陶

范은 勿論 同一한 意

匠의 그릇을 一時에

量産하기 爲한 하나

의 手段으로서 考案

된 것이며 우리 나라

에서는 이미 高麗靑

磁의 初期遺物에서

부터 陶范을 使用한

자취를 남겨주고 있

다. 여기 써 두고자

하는 辛卯銘 陶范原

型은 이번에 創設된

全羅北道 博物館에

所藏된 것이며 元來

는 裡里 金泰元氏가

所有했던 것을 同博
物館에 寄贈한 것이

다. 이 陶范의 出處

는 全羅南道 康津地

方이라고 하나 이를

確認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이 陶范은 길이 二

〇·五 cm 폭 一〇·

八 cm 두께가 四 cm의

赭色素地の 陶版으

로 되어 있으며 勿論

施釉는 되어 있지 않다. 이 陶范은 片面으로 된 菱花形 陶范의 原型이었

던 모양으로 表面中央에 陰刻한 二重副線의 菱花形을 中心으로 外廓에

도亦是 二重陰刻回線을 돌렸으며 中心菱花形內에는 判別하기 어려운 一

枝花를 陰刻하고 있다. 이 意匠이 陰刻된 菱花形平面은 어떤 菱花形器

物의 內底에 象嵌用 印花를 하기 爲한 部分에 該當하는 듯하며 이 陶范을

그대로 活用하면 平面의 陰刻文이 製品에 陽刻文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 陰刻文의 길이로 보나 器底의 크기로 보나 到底히 이러한 陽

刻文은 어울릴 수 없으므로 結局 陽刻文으로 된 象嵌 印花用 陶范을 여러

개 同時에 만들기 爲한 原型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推測이 된다. 卽이

原型에서 卽년 陽刻文 陶范들을 갖이고 器物의 內底에 押捺하면 그곳의

內底에는 同形의 陰刻文이 생기게 되며 이 陰刻文에 白土나 赭土를 充

填하면 結局 象嵌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 陶范의 裏面에는 예새로 대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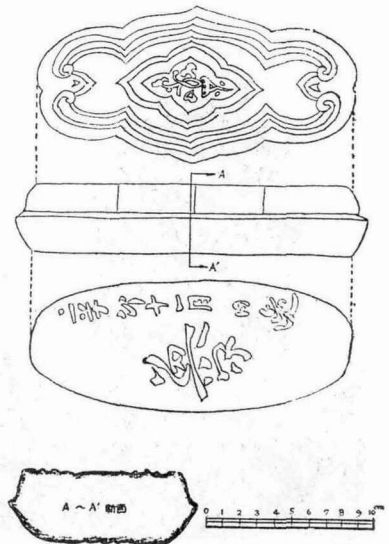
다듬은 뒤에 行書體로 辛卯十一月日 造 奘守라는 刻銘을 했는데 奘守라

함은 이 陶范의 作者인 듯하나 「奘」字는 與字인지 奘字인지 判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守」字가 붙은 陶工名의 款例는 無等山 金谷

窯址에서도 出土例가 있었다.

干支의 辛卯라 함은 이 表面무늬의 意匠樣式에 비추어 보든지 粗略한



象嵌意匠으로 보던지 大略 麗末鮮初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李朝太宗十一年(一四一一)과 高麗忠定王三年(一三五二)中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高麗忠定王三年頃의 象嵌器에서는 이러한 類例의 粗荒한 솜씨를 發見하기 어려우며 太宗三年 近處에서는 이러한 程度의 象嵌類例를 찾자면 朴鍾浩氏所藏의 象嵌粉青恭安府銘大接 또는 德壽宮美術館에도 司膳銘 접시等 적지않은 類例를 볼 수 있으므로 結局이 陶范은 太宗十一年에 製作된 것으로 보아서 큰 誤斷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慶北 英陽郡의 塔像(一)

尹 容 鎮

一、縣二洞 模博石塔

이 塔은 郡廳에서 東으로 約一 km 떨어진 곳에 南北으로 흐르는 河川 건너편에 遺存하고 있다. 古蹟調査資料에는 五層博石塔이라 記載되어 있으나 現在 볼 수 있는 것은 四層만이다. 全體的으로 安東等地에 散在하는 博塔과 同一한 樣式을 取하고 있다.

基壇은 一邊이 六·五 m 高가 〇·八 m 되는 方形石築(上面에 土層)으로 되어 있어서 平地로부터 一段 높게 한 다음 그 위에 第一塔身을 받치기 爲한 一邊이 二·九 m 高一三 cm의 低石段의 괴임이 있다.

塔造成을 爲한 石材는 규격을 一定치 않으나 大體로 平平하게 博模樣으로 다듬은 安山岩質이다. 第一塔身의 規格은 高가 二·五 m 幅이 二·五 m 로서 正方形이며 東쪽 側面에 龕室을 마련하였다. 龕室의 內部는 正方形으로서 一邊이 六二 cm 이다. 龕室門柱石은 花崗石을 長方形으로 다듬어 세웠고 兩쪽 前面에는 流暢한 솜씨로 單調로 우면서 高尚한 氣風이 넘치게 하는 忍多紋이 陽刻되어 있다. 普通 龕室門柱에는 우락 부락한 仁王像이 彫刻되어 있는 것이 通例인데 이 忍多紋을 볼 때는 어

딘지 溫和한 女性的인 香氣를 내뿜고 있다. 精麗하며 輕快한 이 手法은 新羅藝術의 開花를 뜻하는 듯하다.

第一屋蓋部分의 幅은 約三·五 m 이고 屋蓋받침과 落水面은 階段式으로 되어 있으며 받침은 八段으로 되어 있다. 그 이상의 것은 塔全體에 彫굴이 덮혀서 調査를 못했으며 全體高는 大略 七 m 程度이다. 現在 이 塔西쪽에 河川과 接해서 求成寺라는 절이 있으며 그곳에 新羅遺物인 蓮瓣이 새겨진 石燈臺石 등이 散在하고 塔近方에는 古瓦片이 많이 散在하고 있다.

二、立巖面 山海二洞(奉甘) 模博石塔

英陽邑과 靑松 眞寶間을 連結하는 路上에 있는 立岩面支署에서 다시 東쪽으로 一·五 km 가면 英陽 縣洞塔앞을 흐르는 河川이 이 곳에 와서 半圓을 그리며 내려간다. 이 半圓突出部分에 奉甘이란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塔은 이 洞里端 田中에 遺存한다. 外形은 英陽 縣洞과 類似한 一般形이라 할 수 있겠다. 土石으로 나지막한 基壇을 만든 위에 다시 自然의 大石을 안으로 一段 잘고 그 위에다 塔造成에 使用한 石材와 同一한 平扁石을 二段으로 한 괴임을 마련하여 塔身을 받고 있다. 大石으로 된 基壇部는 幅이 四·二 m 괴임은 三·七 m 三·五 m 의 幅을 가지고 있다.

石材의 規格은 一定치 않고 縣洞塔에 使用한 것 보다는 두터우나 역시 水成岩을 平平하게 다듬은 模博이다.

第一塔身의 規格은 高가 二 m 幅이 三·二七 m 로서 東側面에 龕室이 있는 데 그 門柱石과 模

